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15.(화) 12:00
(지 면) 2026. 9. 16.(수) 조간

"과거를 기억하고, 추모의 마음을 잇다"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추모의 뜻을 이어갑니다"
- 9월 17일(목)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서울시청서 동시에 열려
- 미래세대 학생 등 600여 명 참석... 유튜브 생중계로 국민 누구나 추모 참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9월 17일(목) 오후 2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관으로 '제11회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7층 추모공원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지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평생학습관 5층 다목적강당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전국합동위령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이다.

올해 행사에는 유족과 일반시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부산 감만중학교 학생들을 현장에 초청하여 미래세대가 직접 역사를 마주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국민 누구나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본 행사는 식전 종교의례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강제동원 글짓기대회 수상작 낭독 ▲추모공연 ▲추모사 ▲헌화와 분향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9월 2~3주에는 ‘강제동원 희생자 사전 추모 주간’을 운영하였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 지정 장소에서 기억의 조각을 모으는 스탬프 투어(QR코드 또는 NFC태깅)인 ‘기억의 발자국 챌린지’, 강제동원 관련 지식을 겨루는 ‘기억을 잇는 퀴즈대회’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모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국합동위령제는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보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올바르게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거의 아픔을 보듬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추모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책임자	과 장	조상언	(044-205-653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이광태	(044-205-653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담당자	팀 장	송수진	(02-721-1884)



온라인 위령제 생중계



SCAN ME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일 제 강 제 동 원 희 생 자

전국 합동위령제

2026. 9. 17(목) 14:00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7층 추모공원

[서울]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춘천] 춘천평생학습관 5층 다목적강당

종교의례 / 추모공연 / 추모사 / 분향 및 헌화
부산 · 서울 이원 생중계 및 온라인 동시 생중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YouTube 라이브 생중계

| 주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후원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